

초등학교 아동의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이
남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
문제행동과 비행친구 유무의 매개효과*

The Effects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on Early Adolescent Delinquency :
The Mediating Role of Problem Behavior and Delinquent Peers*

송지영(Ji Young Song)¹⁾

박성연(Seong Yeon Park)²⁾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upon early adolescent delinquency. The participants were 2,844 taken from data from the Korean Youth Panel Survey (KYPS). Data from secondary questionnaires data on parent and peer attachment, problem behavior, delinquent peers, and delinquency were used for this study.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a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AMOS 5.0. Our results indicated that, firstly, parental attachment was negatively related to problem behavior for both male and female adolescents, whereas peer attachment was positively related to problem behavior only for males, but not for females. Secondly, problem behavior in childhood has a direct effect on adolescent delinquency, which also can be indirectly mediated by contact with delinquent peers. In conclusion, the path model from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in early childhood to adolescent delinquency was supported only in the case of males.

Key Words : 부모애착(parental attachment), 친구애착(peer attachment), 문제행동(problem behavior), 비행(delinquency), 비행친구(delinquent peers).

* 본 논문은 2010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¹⁾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 전공

²⁾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eong Yeon Park, Dep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 : psy@ewha.ac.kr

I. 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기를 벗어났지만 성인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은 불안정한 시기로서 많은 청소년들이 정서적 혼란을 겪게 되며, 이러한 불안이나 혼란은 종종 청소년 비행으로까지 연결되게 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비행은 전체 비행의 30%대의 높은 수준에 있으며(법무부, 2007) 범행의 내용도 점점 흉포화, 집단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촉법소년의 경우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청소년폭력재단, 2007)으로 보아 청소년 비행의 저 연령화 현상은 점차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고려하여 2007년 12월에는 소년법이 개정되어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한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조정하였다(법무부,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아동기 문제행동과 청소년 비행은 나날이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사후 관리인법 개정 뿐만이 아닌 청소년 비행에 대한 사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 비행은 그 뿌리가 아동기부터 있다는 사실이 그 간의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져 왔다(Patterson, Fogatch, & Stoolmiller, 1998). 즉,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이후 청소년 비행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아동기의 문제행동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비정상적인 또래집단에 가입하게 되면서 청소년기에 이르러 비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Haapasalo와 Tremblay(1994)에 의하면 어린 시절의 신체적 공격성은 이후의 비행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이며, Patterson과 동료들(1992) 역시 어린 시절의 반사회적 행동은 이후 청소년기의 비행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

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학령기의 문제행동이 청소년기의 비행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내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에 대하여 초등학교 시기 혹은 청소년 시기로 국한되어 횡단적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아동기의 문제행동과 청소년기의 비행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횡단적 문제가 아닌 종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비행의 경로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시기의 문제행동이 청소년기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 비행의 예측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기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부모와 친구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와 친구의 영향력에 대해 연구해 온 결과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우선 많은 학자들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Vandell(2000)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아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으며, Maccoby와 Martin(1983)은 부모의 양육유형에 따라 아동은 서로 다르게 성장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아동기는 초등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길어짐에 따라 애착 대상이 부모에서 친구로 변화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부모가 아닌 친구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이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Harris(1995)는 부모의 양육은 아동의 특성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양육의 영향을 축소화시킨 반면, 또래 집단은 아동의 심리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적 요소로서 아동은 또래집단에 의해

언어를 배우는 등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화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또래집단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모와 친구의 영향력에 대한 상반된 주장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문제행동에 미치는 부모와 친구의 영향력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 대신 부모자녀관계의 한 측면인 부모애착과 함께 친구애착이 아동기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애착과 문제행동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아동기의 문제행동이 줄어들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Loeber와 Dishion(1984)은 남자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및 학교에서의 반사회적 행동을 조사한 결과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남자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심미영과 정규석(2007)은 부모애착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문제행동이나 비행을 줄여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백혜정과 황혜정(2006)도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부모애착과 문제행동을 연구한 결과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초등학교생의 문제행동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문경숙(2006)의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충동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애착은 아동기 문제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안정적인 부모와의 애착이 아동기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부모애착이 아동기 문제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하였다.

그러나 친구에 대한 애착은 문제행동을 감소시

킨다는 주장(강규영, 2003; Hirschi, 1969)이 있는가 하면, 친구애착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증가한다는 주장(박민정, 2003; 전연진·박진아, 2007; Agnew, 1991; Hindelang, 1973)도 있고, 친구애착과 문제행동 간에는 관련이 없다(Wiatroski, Michael, Griswold, & Robert, 1981)는 연구결과도 있다. 예를 들어 이상균(1999)은 친구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아동은 지속적으로 공격성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같은 맥락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친구애착과 문제행동을 연구한 결과, 친구애착이 높을수록 사회불안과 내재화문제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강규영, 2003). 마찬가지로 개인과 사회간의 유대를 강조한 Hirschi(1969)는 친구애착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은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Hindelang(1973)의 연구에서는 뉴욕 주의 지방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을 검증한 결과, Hirschi의 연구와는 정반대로 친구애착이 강할수록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gnew(1991) 또한 친구에게 보다 애착을 느끼고, 친구와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은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비일관적 결과는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이 아동기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차이를 알아보려 한다.

한편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이후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는데, 아동기 문제행동과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많은 연구에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꼽는다(Battin, Hawkins, Thornberry, & Krohn, 1998; Reitz, Dekovic, Meijer, & Engels, 2006).

예를 들어 Coie와 Johnson(2001)은 종단연구를 통하여 아동기의 문제행동이 비행친구와의 관계를 통하여 초기 청소년기 비행을 예측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성식(2007)의 연구에서도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청소년 비행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비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Hirschi, 1969). 이처럼 청소년 비행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비일관된 결과는 비행과 비행친구와의 접촉간의 관련성을 확인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문제행동과 비행친구와의 접촉간의 관계에서 그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즉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문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주장과 함께(Reitz, Dekovic, Meiger, & Engols, 2006), 아동의 문제 행동적 특성이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Gottfredson & Hirschi, 1990; Vitaro, Brendgen, & Wanner, 2005).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자신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비행친구를 선택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다시말하면 비행집단에서 비행행동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으로 인한 학습적 영향이 아닌, 이전에 문제행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비행친구 집단의 특성은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행 특성을 지닌 청소년이 비행집단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같은 맥락에서 비행친구 집단의 선택은 비행친구 집단과 이를 선택하는 청소년의 태도나 행동의 유사성으로 인한 상호호감에 상당부분 기초한다(Vitaro, Brendgen, & Wanner, 2005).

국내 연구에서도 청소년 비행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대한 연구에서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앞서 청소년의 특성이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은주

(2009)는 높은 비행행동이 향후 비행친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문제행동이 초기 청소년의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외에도 청소년 비행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비행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주장도 있어 일반적으로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비행을 덜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Mears, Ploeger와 Warr(1998)는 여학생들은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남학생들의 경우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한 한편, 비행친구와 비행의 관계가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Schulenberg, Maggs, Dielman, Leech, Kloska, & Shope, 1999; Svensson, 2003). 이러한 성차는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가정에서의 애정적 유대가 보다 강할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감독과 통제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행의 가능성이 낮다는 사회통제이론으로 설명된다(최수형 · 김준호, 2005).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여자청소년이 비행친구의 영향을 덜 받지만, 부모의 통제가 적을 때는 여자청소년이 비행친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비행친구와 비행의 관계에 성차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Fergusson, Vitaro, Wanner, & Brendgen, 2007). 그러므로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비행친구와 비행 간의 관계나, 이러한 관계에서의 성차는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일관적인 결과는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으며, 연구설계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행친구의 영향력과 비행친구와

비행 간의 관계가 청소년의 성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문제행동이 초기 청소년기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단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기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의 영향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경로를 청소년의 성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은 아동기 문제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아동기 문제행동은 초기 청소년 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아동기 문제행동은 비행친구를 매개하여 초기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행친구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기 문제행동과 초기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중단연구를 통하여 부모애착 및 친구애착과 초기 청소년 비행 간의 발달경로를 밝힘으로써,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 및 지도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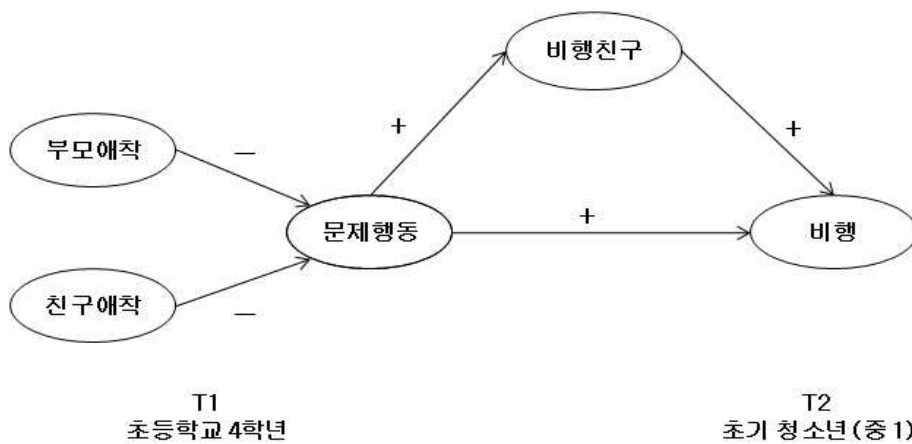
<연구문제 1> 초등학교 시기의 부모애착, 친구애착, 문제행동 및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초기 청소년기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시기의 문제행동이 초기 청소년기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청소년의 성에 따라 다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한국 청소년정책 연구원에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추적 조사한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한국 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 대상자인 2,844명(남자 : 1,524명, 여자 : 1,320명)의 청소년이다. 한국 청소년패널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에 근거하여 2,8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분석 자료



<그림 1> 초등학교 아동의 부모애착, 친구애착, 문제행동 및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초기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연구모형

로 1차년도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초기청소년 분석 자료로는 4차년도 자료가 사용되었다. 연구대상 아동의 평균 연령은 11세(1차년도 패널)이며, 초기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4세(4차년도 패널)이다. 연구대상 아동의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졸업이 42.7%, 어머니의 경우 고등학교졸업이 59.6%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 경제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대상 가정은 중산층으로 볼 수 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부모애착, 친구애착, 문제행동, 비행친구 및 청소년비행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초등학교 아동의 자료(T1)는 부모애착, 친구애착, 문제행동 및 비행친구 문항이며, 비행문항은 초기 청소년의 자료(T2)가 사용되었다.

1) 부모애착

부모애착 척도는 국내 아동의 실정에 맞추어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에서 개발한 자료로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의 온정성요인 3문항과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의 의사소통요인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에 의한 본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76$ 으로 나타나 만족할만한 수준이다.

2) 친구애착

친구애착 척도는 국내 아동의 실정에 맞추어 한국 청소년정책 연구원에서 개발한 자료로 '매우 친한 친구,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매우 친한 친구,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의 친구애정요인 2문항과 '매우 친한 친구,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매우 친한 친구,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의 친구 상호작용 요인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애착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에 의한 본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66$ 으로 나타났다.

3) 문제행동

문제행동 문항은 국내 아동의 실정에 맞추어 한국 청소년정책 연구원에서 개발한 자료로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등 외현화 문제행동요인 6문항과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등 내현화 문제행동요인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심각한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에 의한 본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81$ 로 나타나 만족할만한 수준이다.

4) 초기 청소년 비행

초기 청소년 비행 문항은 국내 청소년의 실정에 맞추어 한국 청소년정책 연구원에서 개발한 자료로 '지난 1년간 술 마시기 여부', '지난 1년간 담배 피우기 여부', '지난 1년간 가출경험 여

부'등 지위비행요인 5문항과 지난 1년간 남을 헐박하기 여부', '지난 1년간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여부'등 폭력비행요인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혀 없다(1점)'와 '있다(2점)'가 사용되었으며, 비행의 정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있다'의 수를 누적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Cronbach's α 에 의한 본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65$ 로 나타났다.

5) 비행친구

비행친구 문항은 한국 청소년정책 연구원에서 개발한 자료로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친구 수', '지난 1년간 담배를 피운 적이 있는 친구 수', '지난 1년간 가출한 적이 있는 친구 수'의 지위비행과 관련된 친구요인 3문항과 '지난 1년간 다른 친구를 헐박한 친구 수', '지난 1년간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는 친구 수', '지난 1년간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는 친구 수', '지난 1년간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는 친구 수'의 폭력비행과 관련된 친구요인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자료에서는 친구 수를 아동이 직접 적을 수 있도록 하는

주관식 문항이 사용되었으며, 비행 친구와의 접촉 정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각 문항별 비행친구 수를 누적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Cronbach's α 에 의한 본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64$ 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 5.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형의 전반적인 부합도를 평가하는 절대 적합도지수인 Q, GFI, AGFI, RMSEA를 사용하는 한편, 기초모형과 제안모형의 비교를 통해 모형의 개선정도를 파악하는 상대적 적합도지수인 TLI, NFI, CFI를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아래에서는 부모애착, 친구애착, 초등학교 문제행동, 비행친구가 초기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표 1> 전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 = 2,844)

잠재변수	측정변수	B	β	S.E.	C.R.	P
부모애착	온정성	1.000	.810			
	의사소통	.979	.690	.054	18.181	***
친구애착	애정	1.000	.557			
	상호작용	2.388	.785	.189	12.616	***
문제행동	외현화문제	1.000	.575			
	내현화문제	1.260	.669	.126	10.000	***
비행친구	지위비행친구	1.000	.425			
	폭력비행친구	4.262	1.008	1.249	3.413	***
초기청소년비행	지위비행	1.000	.929			
	폭력비행	.377	.435	.094	3.996	***

*** $p < .001$.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기 전에 모형정립에서 가정된 변수들과 잠재변인간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모형의 경로를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는 한편, 성별을 조절변수로 사용한 변수 간 경로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는 <표 1>에서 보듯이 C.R.(Critical Ratio : t)값이 모두 1.96이상으로 측정모형의 가설을 입증하는데 유의한 변인(김계수, 2007)인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표준화계수 역시 .40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정결과에서는 절대부합지수인 Q(2.99), GFI(.995), AGFI(.989), RMSEA(.027, 90% 신뢰구간 .020~.034)와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976), NFI(.980), CFI(.987)가 판단지수에 모두 적합한 것(홍세희, 2000)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와 잠재변인 연구모형에 적합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2. 구조모형 분석

연구문제인 부모애착, 친구애착, 문제행동이

초기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알아 보기위해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연구문제 1을 위해 각 변인들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절대부합지수인 Q(2.79), GFI(.995), AGFI(.989), RMSEA(.025, 90% 신뢰구간 .010~.028)와 상대적 적합도지수인 TLI(.979), NFI(.979), CFI(.987)로 산출됨으로써,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수에 대한 추정치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것은 비 표준화계수(B)와 기각률(C.R.)을 살펴보았고, 모형의 효과성 분석은 표준화된 계수(β)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 2> 참조), 외생변수인 부모애착(ξ_1)은 내생변수인 아동의 문제행동(η_1)에 부적인 영향($B = -.269, \beta = -.402$)을 미쳤으며, 외생변수인 친구애착(ξ_2)은 내생변수인 문제행동(η_1)에 정적인 영향($B = .271, \beta = .101$)을 미쳤다. 또한 내생 변수들 간의 추정치 방향을 살펴보면 문제행동(η_1)은 비행친구(η_2)에 정적인 영향($B = .056, \beta = .152$)을 미쳤다. 비행친구(η_2)는 초기 청소년 비행(η_3)에 정적인 영향($B = .194, \beta = .047$)을 미쳤으며, 문제행동(η_1)은 비행(η_3)에 정적인 영향($B = .199, \beta = .131$)을 미쳤다.

부모애착, 친구애착, 문제행동, 비행친구, 비행의 인과관계를 보기위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부모애착은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부

<표 2> 연구모형의 변수 간 경로계수 (N = 2,844)

	B	β	SE	C.R.	P
부모애착(ξ_1)→문제행동(η_1)	-.269	-.402	.032	-8.402	***
친구애착(ξ_2)→문제행동(η_1)	.271	.101	.056	4.862	***
문제행동(η_1)→비행친구(η_2)	.056	.152	.019	2.901	**
비행친구(η_2)→비행(η_3)	.194	.047	.074	2.607	**
문제행동(η_1)→비행(η_3)	.199	.131	.037	5.427	***

*** $p < .001$. ** $p < .01$.

<표 3> 부모애착, 친구애착, 문제행동, 비행친구 및 비행의 인과적 효과 (N = 2,844)

	인과적 효과(β)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모애착→문제행동	-.402	-	-.402
친구애착→문제행동	.101	-	.101
문제행동→비행친구	.152	-	.152
비행친구→비행	.047	-	.047
문제행동→비행	.131	.007	.138

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친구애착은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문제행동은 비행친구와 비행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하여 비행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연구문제 2를 위해 부모애착, 친구애착, 문제행동 및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초기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성별 조절변수를 사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남학생(Q = 1.97, GFI = .993, RMSEA = .025, TLI = .978, NFI = .972, CFI = .986)과 여학생(Q = 2.34, GFI = .990, RMSEA = .032, TLI = .964, NFI = .961, CFI = .977) 모두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남녀 모두에게 적합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표 4> 참조).

한편, 성별에 따른 각 경로에 대한 모수 추정치

를 비교한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부모애착은 남녀 모두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애착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친구애착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증가($\beta = .125$)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 친구애착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과 비행친구의 접촉에서는 남녀 모두 문제행동이 높을수록 비행친구와의 접촉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문제행동이 남학생의 문제행동 보다 비행친구의 접촉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학생 : $\beta = .170$, 여학생 : $\beta = .218$). 또한 비행친구와 비행의 경로분석 결과, 남학생의 경우 비행친구가 비행에 정적인 영향($\beta = .075$)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문제행동과 비행의 관계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문제행동이 비행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학생 : $\beta = .114$, 여학생 : $\beta = .114$).

성별 인과관계 분석 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애착과 문제행동과의 인과관계에서 남학생의 직접효과의 경로계수는 $\beta = -.370$ 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직접효과의 경로계수는 $\beta = -.325$ 로 나타났으며, 간접효과는 없었다. 친구애착과 문제행동과의 인과관계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직접효과

<표 4> 성별에 따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남아 N = 1,524, 여아 N = 1,320)

조절변수	χ^2	df	Q (χ^2/df)	GFI	AGFI	RMSEA			TLI	NFI	CFI	
						M	LO90	HI90				
성별	남	55.3	28	1.97***	.993***	.986***	.025***	.015	.035	.978***	.972***	.986***
	녀	65.5	28	2.34**	.990***	.981***	.032***	.022	.042	.964***	.961***	.977***

***p < .001. ** p < .05.

<표 5> 성별에 따른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 분석

N = 2,844(남아 : 1,524명, 여아 : 1,320명)

경로	남학생				여학생			
	B	β	C.R.	P	B	β	C.R.	P
부모애착→문제행동	-.210	-.370	-5.17	***	-.247	-.325	-5.70	***
친구애착→문제행동	.245	.125	3.57	***	-.003	-.013	-.032	.974
문제행동→비행친구	.097	.170	2.50	*	.020	.218	1.98	*
비행친구→비행	.204	.075	2.65	**	.168	.010	.347	.729
문제행동→비행	.178	.114	3.09	**	.184	.114	4.033	***

*** $p < .001$. ** $p < .01$. * $p < .05$.

<표 6> 성별에 따른 인과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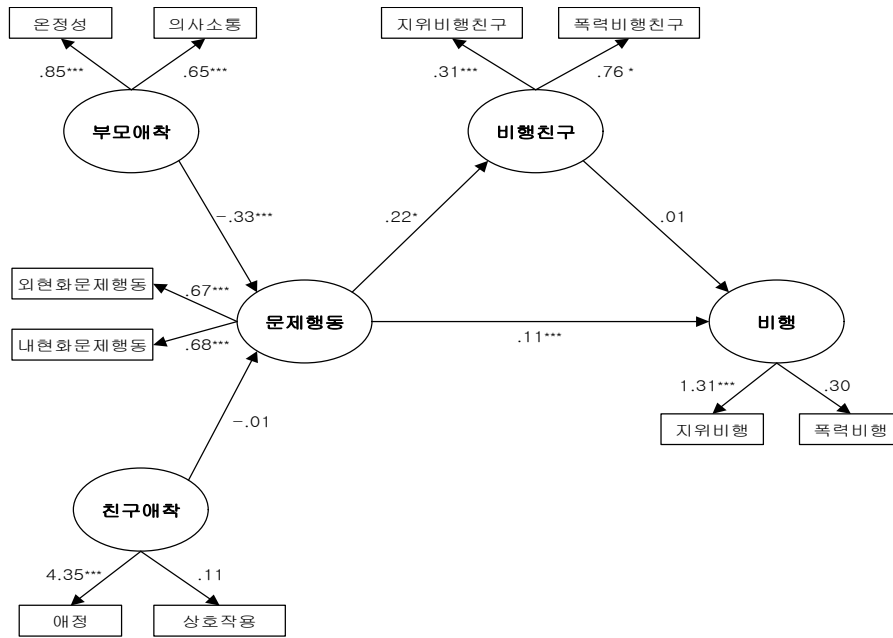
N = 2,844(남아 : 1,524명, 여아 : 1,320명)

경로	인과적 효과(β)					
	남자			여자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모애착→문제행동	-.370	-	-.370	-.325	-	-.325
친구애착→문제행동	.125	-	.125	-.013	-	-.013
문제행동→비행친구	.170	-	.170	.218	-	.218
비행친구→비행	.075	-	.075	.010	-	.010
문제행동→비행	.114	.013	.127	.114	.002	.116

의 경로계수는 $\beta = .125$, $\beta = -.013$ 으로 나타났으며, 간접효과는 없었다. 문제행동과 비행친구, 비행친구와 비행과의 인과관계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직접효과는 있었으나, 간접효과는 없었다. 한편, 문제행동과 비행과의 인과관계에서는 남학생의 직접효과의 경로계수는 $\beta = .114$, 간접효과의 경로계수는 $\beta = .013$ 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직접효과의 경로계수는 $\beta = .114$, 간접효과의 경로계수는 $\beta = .002$ 로 나타났다(<그림 2>, <그림 3>참조).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 비행친구와 비행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비행친구를 매개하여 비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은 매개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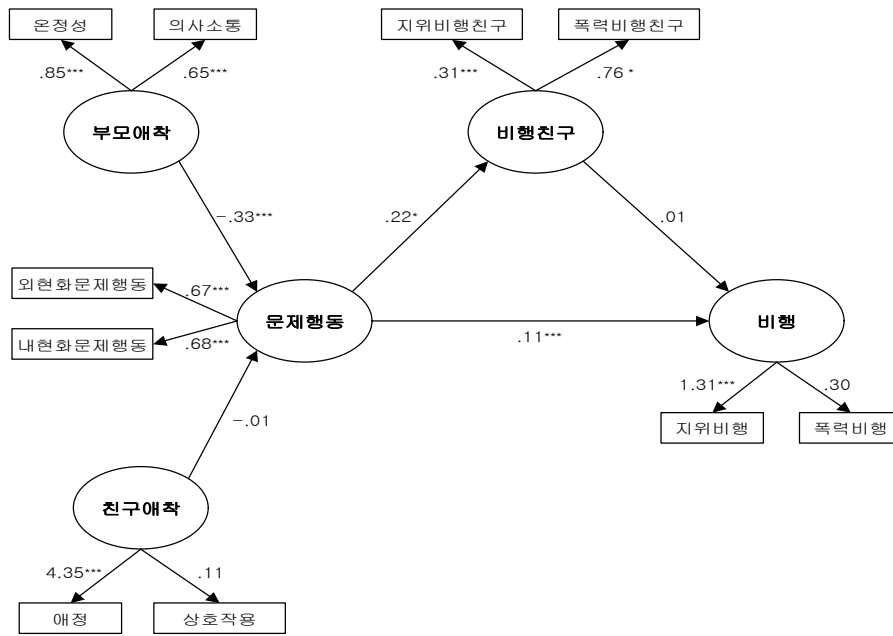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 2,844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와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아동의 문제행동이 초기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이 초등학교 아동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비행 친구와의 접촉이 초등학교 아동의 문제행동과 초기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로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2> 남학생 연구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3> 여학생 연구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모형의 측정모형분석결과 각 적합도 지수들은 그 기준치를 충족시켜, 측정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었으며, 모든 측정변수들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기준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측정변수는 이론변수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구조모형분석결과 적합도 지수들은 절대부합지수와 상대적 적합도 지수 모두 각 기준치를 충족시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연구문제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아동기의 부모애착은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친구애착은 아동기 문제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은 부모와의 유대가 높을수록 비행률이 낮아진다고 보는 Hirschi(1969)의 사회유대이론과,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반사회적 행동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Loeber & Dishion, 1984)를 지지한다. 또한 친구애착이 문제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 본 연구결과는 친구에게 애착을 더 많이 느끼고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Agnew, 1991)와 청소년들은 친구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낸다(Adler & Adler, 1998)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반면에 친구와의 유대가 좋으면 아동의 비행은 줄어든다고 주장한 Hirschi(1969)의 사회유대이론과는 불일치한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에서 친구애착이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는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에 기인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초등학교 시기 아동은 잘못된 행동이나 올바른 행동에 대한 판단력이 미숙한 한편,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초기 청소년의 경우는 더 어린 아동이나 나이든 아동보다 또래동조

성이 증가하기 때문에(Berk, 2004), 또래에 대한 애정이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문제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결과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느끼는 온정성이나 의사소통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초등학교 아동의 친구애착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아동기 문제행동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비행친구는 초기청소년 비행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Scarr와 McCartney(1983)가 주장한 교류적(transactional) 관점에서 보면, 아동이 지닌 어떤 특성으로 인해 아동 자신이 그에 맞는 어떤 독특한 환경을 추구하게 되는 경향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비행에 대한 호의적인 가치와 태도를 학습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행에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보는 사회학습이론(Akers, 1998)을 지지한다. 따라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동의 특성은 비행친구를 끌어들여게 되며, 초등학교 아동의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이후 초기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초등학교 아동의 문제행동은 초기 청소년 비행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쳐 초등학교 아동이 문제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초기 청소년 비행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의 문제행동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어린 시절에 문제행동을 일으킨 아동은 이후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도 비행을 나타냈다는 연구결과들(Haapasalo & Tremblay, 1994; Hwang & Robert, 1998; White, Moffitt, Earls, Robins, & Silva, 1990)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의 뿌리는 아동기 문제행동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초등학교 아동의 문제행동 및 비행친구가 초기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아동의 문제행동은 비행친구를 통하여 초기청소년 비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초등학교 아동은 문제행동을 많이 나타낼수록 비행친구를 더 많이 접하게 되며, 비행친구를 더 많이 접할수록 초기 청소년 비행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비행친구와의 관계를 통하여 청소년기 비행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Battin, Hawkins, Thronberry, & Krohn, 1998; Coie & Johnson, 2001; Reitz, Dekovic, Meijer, & Engels, 2006)의 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아동이 비행친구와 접촉을 하게 될 경우 초기 청소년 비행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애착, 친구애착, 문제행동 및 비행친구가 초기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에서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첫째, 부모애착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남녀 모두 부모애착이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모애착의 영향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초등학교생의 문제행동은 줄어들었으며, 특히 남자 초등학교생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관계가 딸보다 아들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Rothbaum과 Weisz(199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은 여아에 비해 남아에게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둘째, 친구애착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남학생의 경우는 친구애착이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친구애착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탈행동에 대한 일탈친구의 영향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난다는 이상문(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 같은 본 연구결과는 여학생의 경우 대체로 또래보다는 부모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이상문, 2005)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한편, 또래 애착이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셋째, 비행친구와 비행의 관계에서 남학생의 경우에는 비행친구가 초기 청소년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비행친구와 초기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초등학교생의 경우 비행친구를 더 많이 접하게 될수록 초기 청소년 비행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여학생의 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친구가 남학생들의 비행에 대한 위험요인인데 반해 여학생들의 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Mears, Ploeger, & Warr, 1998)는 것으로 뒷받침된다.

넷째, 문제행동과 비행친구와의 관계에서 여학생의 문제행동이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비해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동은 자신의 비행적 특성으로 인해 비행친구를 더욱 많이 접하게 된다(Vitaro, Brendgen, & Wanner, 2005)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며, 특히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초등학교 아동의 문제행동과 초기 청소년 비행 간의 인과관계에서 남학생만이 비행친구를 매개하여 비행을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행친구도 많고 비행도 많이 한다는 결과(Piquero, Gover,

MacDonald, & Piqero, 2005; Svensson, 2003)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함께 친구애착이 남학생의 문제행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여학생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앞에서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비행친구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 것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아동의 부모애착은 남녀 아동의 문제행동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애착은 남아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반면, 여아의 문제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청소년의 성에 따른 경로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아동의 문제행동은 초기 청소년 비행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며, 아동기 문제행동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하여 초기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경로에서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비행 간의 관계는 남학생의 경우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친구애착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성차를 나타내었다. 즉 초등학교 아동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남녀 아동의 문제행동이 줄어들며, 친구애착이 높을수록 남아의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한편, 초등학교 남아의 문제행동이 높을수록 직접적으로 또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초기 청소년 남아의 비행이 더욱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에서 부모가 아동기 자녀에게 온정적으로 대하며 친구와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아동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초등학교 아동의 또래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특히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동의 경우는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초기 청소년

비행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또래관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여아에게는 부모와의 애착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청소년 비행에서 친구와의 애착이나 비행친구와의 접촉으로 인한 영향이 남아에게 특히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남녀 아동을 차별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아동의 문제행동이나 청소년 비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패널조사의 특성상 방대한 자료 중에 애착변인을 측정하는 문항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대해 양적인 부분만을 측정하여 질적인 부분은 측정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애착변인을 측정하는 문항수의 추가 및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대해 질적인 부분을 추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규모 종단자료를 통해 초등학교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애착의 중요성과 함께 친구애착으로 인한 영향이나 경로가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기 청소년 비행의 뿌리가 아동기 문제행동에 있으며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초기 청소년 비행에 중요한 변인임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 비행 예방에 필요한 관련변인 및 그 시기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강규영(2003).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불안과 공격행

- 동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계수(2007). **Amos 7.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 한나래출판사.
- 문경숙(2006).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27(5), 143-157.
- 박민정(2003).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혜정 · 황혜정(2006). 초등학교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9(3), 1-28.
- 법무부(2007).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 심미영 · 정규석(2007). 한국청소년비행에 관한 Hirschi 이론의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12(3), 147-172.
-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문(2005). 성별에 따른 일탈행동 성장경로의 차이 : 미국 청소년패널조사(NYS)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4), 162-198.
- 이성식(2007).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의 청소년 비행에의 영향 : 청소년패널 자료의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8(2), 159-181.
- 이은주(2009). 청소년 비행과 비행친구의 인과관계에 대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의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1), 141-171.
- 전연진 · 박진아(2007). 아동기와 청소년기 공격성에 미치는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의 상대적 영향 분석 : 연령차를 중심으로. 제 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학술대회 논문집, 79-88.
- 청소년폭력재단(2007). 학교폭력 실태조사 추이분석.
- 최수형 · 김준호(2005). 여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한 연구. 2005년 후기 사회학대회 발표집.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1), 161-177.
- Adler, P. A., & Adler, P. (1998). *Peer Power : Preadolescent culture and identity* New Brunswick, NJ : Rutgers University Press.
- Agnew, R. (1991). *The Interactive Effects of Peer Variables on Delinquency*. *Criminology* 29(1), 47-72.
- Akers, R. L. (1998). *Social Learning and Social Structure :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Deviance*, Boston :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Battin, S. R., Hawkins, J. D., Thornberry, T. P., & Krohn, M. D. (1998). *The Contribution of Gang Membership to Delinquency Beyond the Influence of Delinquent Peers*. Bulletin. Washington, DC : U. 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Berk, L. (2004). *Development through the life span*. 3rd. Ed. NY : Allyn & Bacon.
- Coie, J. D., & Johnson. M. S. (2001). *Peer Factors and Interventions*. In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Offenders : Risk Factors and Successful Interventions*, edited by R. Loeber and D. P. Farrington. Thousand Oaks, CA : Sage Publications, Inc., 1991-209.
- Fergusson, D., Vitaro, F., Wanner, B., & Brendgen, M. (2007). *Protective and Compensatory Factors Mitigating the Influence of Deviant Friends on Delinquent Behaviors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30(1), 33-50.
- Gottfredson, M.,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ppasalo J., & Tremblay, R. E. (1994). *Physically aggressive boys from ages 6 to 12 : Family background, parenting behavior, and prediction of delinquen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1044-1052.
- Harris, J. R. (1995). *Where is the child's environment? A group socialization theory of development*. *Psychological Review*, 102, 458-489.
- Hindelang, M. J. (1973). *Cause of delinquency : A partial replication and extension*. *Social Problems*, 20, 471-487.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University

- of California Press, Berkley and Los Angeles.
- Hwang, & Robert, J. (1998).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 primary school children from new clear extended family in Korea.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0, 671-689.
- Loeber, R., & Dishion, T. J. (1984). Boys who fight at home and school : family conditions influencing cross-setting consisten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 759-768.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H.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th ed., Vol.4)*. New York : Wiley.
- Mears, D., Ploeger, M., & Warr, M. (1998). Explaining the gender gap in delinquency : Peer group influence and moral evaluations of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 251-266.
- Patterson, G. R., Crosby, L., & Vuchihich, S. (1992). Predicting risk for early police arrest,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8, 335-355.
- Patterson, G. R., Fogatch, M. S., Yoerger, K. L., & Stoolmiller, M. (1998). Variables that initiate and maintain an early-onset trajectory for juvenile offending.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 531-547.
- Piquero, N., Gover, A., MacDonald, J., & Piquero, A. (2005). The influence of delinquent peers on delinquency : Does gender matter? *Youth and Society*, 36(3), 251-275.
- Reitz, E., Dekovic, M., Meijer, A., & Engels, R. (2006).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parenting, best friends, and early adolescent problem behavior : Testing bidirectional effec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6(3), 272-295.
- Rothdaum, F., & Weisz, J. R. (1994). Parental caregiving and child externalizing behavior in nonclinical samples :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55-74.
- Scarr, S., & McCartney, K. (1983). How people make their own environments : A theory of genotype/environment effects. *Child Development*, 54, 424-435.
- Schulenberg, J., Maggs, J. L., Dielman, T. E., Leech, S. L., Kloska, D. D., & Shope, J. T., et al. (1999). On peer influences to get drunk : A panel study of young adolescents. *Merrill-Palmer Quarterly*, 1(45), 108-142.
- Svensson, R. (2003).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drug use : The impact of parental monitoring and peers deviance, *Youth and Society*, 34(3), 300-329.
- Vandell, D. L. (2000). Parents, Peer groups, and other socializing influ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36, 699-710.
- Vitaro, F., Brendgen, M., & Warner, B. (2005). Patterns of affiliation with delinquent friends during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 Correlates and consequences. *Social Development*, 14(1), 82-108.
- White, J. L., Moffitt, T. E., Earls, F., Robins, L., & Silva, P. A. (1990). How early can we tell? Predictors of childhood conduct disorder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8, 507-533.
- Wiatrowski, Michael, D., D. B. Griswold, & Mary, K. R. (1981). Social control theory and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y Review*, 46, 525-541.

2009년 12월 23일 투고, 2010년 3월 21일 수정
2010년 3월 26일 채택